

<서평>

『다시보기: 이스라엘의 포로와 회복』

(개리 N. 크노퍼스 외, 이윤경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9)

김지훈*

1. 서론

크노퍼스(Gary N. Knoppers)와 그래브(Lester L. Grabbe), 풀턴(Deirdre N. Fulton)이 편집한 『다시보기: 이스라엘의 포로와 회복』(*Exile and Restoration Revisited: Essays on the Babylonian and Persian Periods in Memory of Peter R. Ackroyd*)은 2006년 미국성서학회의 <역대기-에스라-nehemya 아크로이드(Peter R. Ackroyd) 기념 분과>와 <페르시아 시대의 문학과 역사 분과>에서 발표된 논문들과 몇 개의 논문을 추가하여 출판된 책이다. 개인적으로 박사 학위 논문을 초기 아케메니드(Early Achaemenid)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를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카터(Charles E. Carter)의 <페르시아 시대 예후드의 출현>(*The Emergence of Yehud in the persian period*, 1999)¹⁾과 리프슈츠(Oded Lipschits)의 <예루살렘의 흥망성쇠>(*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2005)²⁾는 학위 논문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³⁾ 이와 함께 이번에 이윤경이 번역한 이 책은 11명의 구

* 한신대학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한신대학교 강사. haarez@hanmail.net.

1) Charles E. Carter, *The Emergence of Yehud in the Persian Period: A Social and Demographic Study*, JSOTSup 29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2) Oded Lipschits,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onian Rule*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3) 김지훈, “초기 아케메니드 예후드 지방의 정치, 경제의 빛에서 바라본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2018); 강후구, “서평: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onian Rule* (Oded Lipschits, Winona Lake:

약학자가 총 12편의 논문을 제출하였다. 이 책의 12편의 논문 가운데 6명의 학자가 저술한 책과 논문을 박사 학위 논문에 인용하였고 학위 논문에는 인용되지는 않았지만 크라츠(Reinhard Kratz)와 리스타우(Kenneth A. Ristau)는 초기 아케메니드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관련 자료를 함께 읽었으므로 11명 가운데 8명의 학자의 논문을 만난 셈이다.

이스라엘이 유다 말기와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초기 아케메니드로 이어지면서 이 시기의 역사에 대한 연속성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제한적이다. 그런 가운데 크노퍼스가 편집한 이 책은 출판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아크로이드 이후 포로기와 제2성전과 관련된 연구가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함의점들을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2. 내용 요약

2.1. 제1장: 에스라 9-10장의 ‘이방 여인’의 정체성 연구

에스라 9-10장의 통혼에 대한 위기에 대해서 베킹(Bob Becking)은 텍스트 내적 동기와 텍스트 외적 동기로 나누어서 접근한다. 통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베킹은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을 통해 경고를 위반하는 규정에 대해서 논하면서 신명기적 금령은 남녀 모두를 포함하지만 에스라서에서는 이방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에 주목한다(60쪽). 베킹은 에스라 9장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있어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에스라 9:1에 언급된 ‘여덟 민족’의 정체성. 둘째, ‘다른’ 여인을 나타내는 에스라 10장에서 몇 차례 언급된 형용사 *nokri*(이상한, 이방의)의 의미론. 셋째, 다른 인종들이 페르시아 예후드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가장 먼저 베킹은 페르시아 시대의 혼혈 인종의 징후들에 대해서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목록에 나타나는 인명은 당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아닌 소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말한다(63-65쪽). 또한 트랜스 요르단 지역 텔 알-마자르에서 발견된 텔 알-마자르 도편 VII(Tell al-Mazar Ostrakon VII)에 대한 휘브너(U. Hübner)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종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당시의 군인이나 페

르시아 관료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결론은 성급하다”고 밝힌다(66-67쪽). 노예 매매를 언급하고 있는 사마리아 파피루스는 37개의 인명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2007년 마간(Y. Magan)의 논문에 의해서 반박되었다(68쪽). 고대 마케다(Maqqēdāh)의 아람어 아카이브에서 1,000여개의 명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명문의 가장 많은 부분은 지적도를 포함한다. 베킹은, 종교적 배경이 다양하다고 해서 다인종이나 다신교 인구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삼기가 어렵듯이, 마케다 아카이브는 전체적인 지적도이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집단의 공존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았다(71쪽).

베킹은 고고학과 금석학을 통해 그리심과 사마리아, 마케다와 라기스의 야웨 성소를 보여 주면서 신전마다 다양한 야웨주의가 나타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72쪽). 이것은 에스라 9장의 통혼이 단지 이방 여인에 대한 금지가 아니라 예후드 지역 내의 내부 집단을 의미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예후드 집단 가운데 나타나는 위협은 그 사회 안에서 희생할 수 있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것은 실제 야웨주의(Yahwism)에 대한 내부 논쟁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74쪽).

2.2. 제2장: 참회의 시대인 페르시아 시대: 다니엘 9:1-27의 ‘주석적 논리’

버그스마(John S. Bergsma)의 논문은 성서에 대한 수용된(received) 텍스트와 인지된(perceived) 텍스트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한다. 다니엘 9장은 예레미야의 70년의 예언의 의미를 예루살렘의 황폐의 종결로 이해한다. 그러나 버그스마는 이 본문을 수용된 텍스트와 인지된 텍스트의 사이의 차이점으로 접근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70년을 의미했다고 이해한다. 이 점은 히브리어 ‘이해하였다, 인지하였다’라는 뜻을 가진 빈(יָבִין)이 ‘내가 조사하였다, 내가 이해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박이다. 버그스마는 다니엘 9장을 통해 다니엘은 예레미야 70년의 끝 무렵에 있으며 예언 성취를 위해 기도하지만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보았다(85-86쪽). 둘째, 다니엘의 기도는 주석적 통찰력이 아니라 참회 기도이다(86-87쪽). 셋째, 가브리엘은 예레미야의 신탁을 해석하지 않으며 오히려 70년이 끝난 것으로 보았다(87-88쪽).

버그스마는 페르시아 시대에 대한 다니엘의 신학적 관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다니엘 9장은 고레스 치하에서 시작한 시온으로의 귀환은 회복 예언의 성취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하다. 둘째, 다니엘 9장의 관점에서 볼 때, 페르시아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사에서 참회의 시기

이다. 셋째, 이 시기가 참회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다니엘 저자가 부여한 이 시기의 부정적 특징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97-98쪽).

2.3. 제3장: 사라진 ‘아론의 아들들’의 미스터리

제사장은 아론계 제사장, 사독계 제사장 그리고 레위계 제사장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제사장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일정한 정보나 연속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말 그대로 내러티브가 일관되지 못하며 성서를 통해 이들의 역사를 재구성하거나 추론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인다. 특별히 요시야 개혁 이전까지 제사장은 사독계 제사장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요시야 개혁을 통해 레위계 제사장이 정리되고 아론계 제사장이 등용되는 것처럼 보였다. 포로기를 거쳐 초기 아케메니드 당시 제사장은 사독계 제사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아론계 제사장은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주로 나온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비롯하여 여호수아 24:33에는 엘르아살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난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삿 20:27-28)에 의해 법궤가 보호되었다.

블렌킨소프(John Blenkinsopp)는 포로기 이후 제사장 역사에 관하여 케네트(Robert H. Kennett)와 노스(Francis S. North)의 논문을 비교한다. 케네트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 손자 비느하스에 대한 제사장직 계승에 대한 역사를 신명기 10:6-9; 민수기 33:38-39; 출애굽기 32장과 여호수아 24:33; 사사기 20-21장을 통해 정리한다. 케네트는 사사기 18:30을 토대로 아론-엘르아살-비느하스를 벤엘 제사장으로 모세-게르숨-요나단을 단 제사장과 연결하여 해석한다. 특별히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론이 처벌받지 않은 이유를 열왕기상 12:26-33에서 여로보암이 단과 벤엘에 제의를 설치한 것과 비교하면서 출애굽기 32장의 내러티브는 아론을 벤엘의 제사장직의 시조로 기념하기 위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역대상 5:27-41에서 대체사장직의 족보가 사독 제사장으로부터 여호사닥까지 연결하려는 의도와 그 입장을 같이하는 것이다. 특별히 제2성전 이후 에스라를 아론의 후손(스 7:1-5)으로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라를 스라야의 아들로 언급하려는 의도를 지적하고 느헤미야 이후 제사장과 관련된 언급이 민수기 18:25-32의 아론계 제사장직과 연결되어 있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케네트는 아론 가문을 ‘포로 후기 말의 창작’으로 결론 내린다. 케네트는 여로보암이 단과 벤엘에서 제의를 드리는 것은 아론이 벤엘의 제사장직

의 시작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다(110쪽). 벤엘과 관련하여 케네트는 포로민들이 돌아와 제2성전을 재건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사독계가 아니라 오히려 아론계라고 주장한다(112쪽). 가장 쟁점이 되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 대해서 노스는 케네트의 주장과는 달리 사독계였음을 밝힌다. 이것은 스가랴 7:1-3과 여호수아 19:51; 21:1에서 아론의 큰 아들인 엘르아살을 실로와 연결하는 것과 또한 포로기 이후부터 제2성전이 재건되는 사이, 미스바가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거점 지역이 되면서 미스바와 인접한 벤엘이 성소의 자리를 차지하고 아론계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제사장들을 대신한 것으로 보았다(114쪽). 노스는 칠십인역과 시리아어 판본 그리고 탈굼을 가지고 벤엘과 합성된 이름에 대한 주장이나 벤엘을 벤엘의 사람들로 읽으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케네트의 주장은 포로기 이후와 초기 아케메니드 사이의 공백기 동안 제사장과 관련된 정치권력에 대한 공백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케네트는 아론계를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대체사장이 되었고 사독계열은 레위-아론계 족보 체계에 흡수되었다고 본다(116쪽).

2.4. 제4장: 이스라엘의 포로와 회복으로부터 포로와 재건까지

에스케나지(Tamara Cohn Eskenazi)는 아크로이드 이후 25년 동안 (1981-2006) SBL에서 포로 후기와 관련하여 얼마나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하였다. 1981년에는 단 두 개에 그쳤던 논문이 1986년에는 윌슨(Robert R. Wilson)과 오브리언(Julia M. O'Brien) 그리고 에스케나지, 야펫(Sara Japhet), 클라인(Ralph W. Klein)과 윌리엄슨(H. G. M. Williamson)의 논문으로 증가되었고 2006년에는 이와 관련하여 분과가 증가한 것과 관련하여 고고학, 성서 본문 세밀하게 분석하기, ‘회복’ 시기 연구 자료, 협동 연구 그리고 토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123-134쪽). 고고학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는 달리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긴장감은 구체적으로 베냐민 지역 거주자와의 긴장일 수 있다고 보았다. ‘성서 본문 세밀하게 분석하기’에서 더건(Michael W. Duggan)은 느헤미야 8-10장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라이트(Jacob L. Wright)는 ‘에스라-느헤미야가 등장하게 된 과정과 성서의 다른 책들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재평가하였다. ‘회복’ 시기 연구 자료는 아크로이드가 제안하였듯이 이 시대에 대한 성서 본문과 고고학 그리고 그리스, 페르시아, 바벨론, 이집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협동 연구에 대한 것은 2000년 SBL의 페르시아와 토라에 대한

승인 연구 결과를 묶은 <페르시아와 토라>⁴⁾와 이후 리프쉬츠와 외밍(Manfred Oeming) 그리고 알베르츠(Rainer Albertz)를 중심으로 유다의 문학과 역사에서 나타난 다른 측면을 연구하고자 했던 결과물의 반영인 <신바벨론 시대의 유다와 유다 사람들>⁵⁾, <기원전 4세기의 유다와 유다 사람들>⁶⁾로 출간되었다(128-129쪽). 토라와 관련한 쟁점 사항은 ‘기원전 5세기를 오경의 정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구성의 시작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130쪽). 특별히 에스케나지는 브레트(Mark Brett)의 <창세기: 정체성의 생산과 정치학>⁷⁾에서 창세기를 민족성의 문제를 통해 해석하려는 점에 주목한다. 이것은 오경과 에스라-느헤미야에 대한 버쿠이스트(Jon Berquist), 스카(John Ska), 호글룬드(Kenneth Hoglund), 스미스(Daniel Smith)의 해석과 비교하여 당시와 관련된 성서 내용을 저항의 문화로 해석하려는 점과 연결되어 있다(132-133쪽). 마지막으로 에스케나지는 문화인류학과 사회학 그리고 민족성과 정체성의 문제와 같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의 사용을 강조한다.

2.5. 제5장: 예수아의 ‘대제사장’ 계보? 느헤미야 12:10-11 재평가

폴턴은 느헤미야 12:10-11이 대제사장 승계 목록이 아니라 제사장 계보임을 논증한다(143쪽). 느헤미야 12:10-11에 등장하는 ‘예수아-요야김-엘리아십-요야다-요나단-얏두아’에 대해서 크로스(F. M. Cross)와 코흐(K. Koch)를 통해 자신의 논증을 이어간다. 크로스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짓는 현상으로 인하여 이러한 목록에서 이름이 빠질 수 있다고 보고 느헤미야 12:10-11의 제사장의 긴 임기는 그 자체로 텍스트의 손실의 증거라고 보았다(146쪽). 코흐는 제사장 칭호의 부재에 대해서 원래 형태는 대제사장 호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후대 편집자는 호칭을 숨긴 것으로 해석한다(147쪽). 반대로 윌리암슨은 이 구절의 목록을 완벽한 것으로 이해한다. 블렌킨소프는 이 구절이 대제사장 계승을 대변한다고 보았다. 밴더캠(J. C. Vanderkam)은 요나단을 요하난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해석은 요세푸스의 고대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폴턴은 열왕기상하의 연대기

4) James W. Watts, ed., *Persia and Torah: the theory of imperial authorization of the Pentateuch*,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5) Oded Lipschits and Joseph Blenkinsopp, 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Neo-Babylonian Period*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6) Oded Lipschits, Gary N. Knoppers, and Rainer Albertz, 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Fourth Century B.C.E.* (Winona Lake: Eisenbrauns, 2007).

7) Mark Brett, *Genesis: Procreatio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00.

를 통해 여섯 명의 유다 왕 통치 기간과 느헤미야 12:10-11의 목록을 비교한다.

풀턴은 느헤미야 11-12장의 큰 틀을 통해 족보 목록을 분석한다. 느헤미야 12:12-16은 요야김 시대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목록인데 느헤미야 12:1-9은 12:12-16과 일치하며 12:10-11은 12:22과 매우 유사함을 지적한다(154쪽). 특별히 예수아의 이름이 12:1-10에서 4회 언급되고 있는데 이 이름은 본문 내에서 매우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예수아가 에스라나 느헤미야에서는 결코 대제사장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학개와 스가랴에서는 무려 8회나 대제사장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비교한다. 풀턴은 이러한 예수아의 비교를 위해 에스라 7:1-5의 목록을 비교한다(156-157쪽). 풀턴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 느헤미야 12:10-11의 목록은 단선형 족보 가운데 구조적, 구성적으로 예수아의 중요성이 드러난다고 보았다(157쪽).

마지막으로 풀턴은 역대상 5:27-41의 목록을 비교한다. 풀턴은 이 목록과 에스라 7:1-5에서 제사장 계보는 아론과 연결되어 있지만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아론이 2회(느 10:39; 12:47)밖에 없는 것에 주목한다. 풀턴은 느헤미야 12:10-11에서는 아론이나 사독에 대한 언급이 없고 포로기 이전 보다는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보았다(160쪽). 결국 역대상 5:27-41은 포로 후기 유다 상황에 대한 제사장 계열을 합법화하며 이 족보는 고핫 제사장 가문에 집중하면서도 다른 제사장 계열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보았다(161쪽). 결론적으로 풀턴은 느헤미야 12:10-11은 성전 재건과 귀환자의 세대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162쪽).

2.6. 제6장: “그들은 시온에 기쁨으로 오리라” 아니면 그들은 왔는가? 초기 페르시아 예후드 정착

그래브(Lester L. Grabbe)는 “바벨론에서 예후드로 온 유대인의 귀환의 배경과 연대”에 대하여 다시 질문한다. 그래브는 포로 후기와 초기 페르시아의 연결점을 통해 인구 팽창의 증거가 부족하며 보통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에스라 1-6장의 개연성에 대해서 의심한다. 또한 다리오라는 이름이 페르시아 역사 가운데 세 명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다(170쪽).

그래브는 초기 페르시아의 정착 연대에 대해서 고레스 칙령과 스가랴 1-8장의 연대, 세스바살 전승과 세펠라와 네게브 그리고 느헤미야 비망록과 세대로 나누어서 논의한다. 특별히 그래브는 초기 페르시아 예후드 당

시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인물인 세스바살,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이들이 전혀 앞의 세대와는 서로 연관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한다(177-180쪽).

2.7. 제7장: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요새였는가?

그래브는 ‘예루살렘은 페르시아 요새였는가?’라는 이 주제를 통해 예후드와 관련된 페르시아 정책에 대해서 질문한다. 페르시아 정책은 크세노폰의 <고레스의 교육>(Cyropaedia)이나 <오이코노미코스>(Oeconomicus)를 통해 접근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래브는 이러한 자료 활용에 대한 진정성을 제기하면서 기존의 튜플린(Christopher Tuplin)의 논증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184-187쪽). 그래브는 페르시아 정책에 대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검토하면서 에스라 1-6장의 성전 재건과 에스라 7장의 아닥사스다 서신의 내용도 ‘일어난 일이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한다(189쪽). 또한 느헤미야서를 통해 예루살렘 수비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한다.

그래브는 이러한 성서 본문의 검토를 통해 예루살렘 성채에 대한 어떤 고고학적 증거도 발견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191쪽). 특별히 느헤미야 7:2의 ‘영문(בִּירָה)의 관원’의 논의에 대해서 집중한다. 영문에 대해서 ‘단순하게 요새화된 도성, 지방의 수도, 벽이 있는 성전’으로 해석되며 역대상 29:1, 19에서 ‘성전’으로 해석되는데 이를 통해 예루살렘에 페르시아 수비대가 있었다는 주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193-194쪽).

2.8. 제8장: 아케메니드 페니키아의 행정: 관리된 자치의 사례

지굴로프(Vadim S. Jigoulov)는 아케메니드 역사 가운데 페니키아와 관련된 자료를 소개한다. 통상적으로 페니키아는 자주 염색을 생산하는 지역인 두로와 유리 생산을 주로 맡고 있었던 시돈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초기 아케메니드 당시 다리오 초기까지는 행정 정책이 미비하였으나 다리오 중기부터 시작하여 말기까지 제국을 20개의 총독 관구(satrapy)로 나누고 제국의 행정을 정비하면서 페니키아 지역 역시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에서 다스려왔다는 것이 지금까지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지굴로프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는 자신의 방법론으로 금석학 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한다(204-208쪽). 루남(LÛ.NAM)이라는 지굴로

프의 칭호는 지방 총독을 표기하지만 총독의 책임과 관구의 일에 그가 개입하는 정도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러한 칭호가 페니키아에서 자주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다른 문서의 언급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또한 이란에서 발견된 건축학적 요소는 이 지역에 관리가 주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합주의 사례의 일부라고 반박한다. 오히려 지굴로프는 ‘관리된 자치’(managed autonomy)라는 표현을 통해 페니키아의 행정 정책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210쪽). 첫째, 페니키아는 토착 문화의 특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둘째, 페니키아의 독립적인 생산은 페르시아 당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페니키아에서 발행된 동전 무게가 일정하지 않는 것은 통화 교환이 탈중앙화적인 특징과 제국의 행정 정책에 대한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넷째, 페니키아의 금석학적 증거는 어디에서도 페르시아의 제국 관리의 존재나 행위를 보여 주지 않는다. 지굴로프는 페니키아의 행정 정책을 통해 페르시아 제국의 다른 지역에 대한 행정 정책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2.9. 제9장: 역사와 사상의 관계: 피터 아크로이드의 『이스라엘의 포로와 회복』의 부제 고찰

크라츠(Reinhard Kratz)는 아크로이드의 책 『이스라엘의 포로와 회복』의 부제인 ‘기원전 6세기 히브리 사상 연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먼저 크라츠는 아크로이드가 이 책을 통해 사건보다는 사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220쪽). 이것은 역사와 역사 편찬에 대한 이해를 통해 확대된다. 크라츠는 역사 편찬에서 사용되는 역사 비평은 역사적 사건에 더 가까이 해주면서 동시에 성서 본문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는 사상에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고 보았다(222-223쪽). 크라츠는 역사와 사상의 관계에서 성서 문학 저자의 관점과 현대 역사가의 관점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은 역사와의 거리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성서 밖의 자료는 역사적 정황에 대한 성찰과 해석을 도와준다고 보았다(223-225쪽). 마지막으로 크라츠는 포로기와 초기 아케메니드 역사의 연대를 활용할 수 있는 성서 본문에 있어서 학개와 스가랴 1-8장, 제3이사야, 에스라 1-6장을 조심스럽게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크라츠는 “사실을 역사적 맥락에 두는 것과 활용 가능한 자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문학적 허구와 신학적 해석을 설명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는데(227쪽) 이를 위하여 정확하게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성서 밖 자료와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다(228쪽). 또

한 크라츠는 성서가 제시하는 과거를 통해 역사적 거리를 비교하고 이에 담겨 있는 이데올로기를 들추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229-230쪽).

2.10. 제10장: 최근 고고학과 인구 통계학 연구의 관점에서 본 이스라엘의 포로와 회복

마이어스(Eric M. Meyers)는 고고학과 인구 통계학을 중심으로 포로기와 초기 페르시아 시기로 이어지는 역사를 조명한다. 마이어스는 리프쉬츠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루살렘의 인구를 철기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1,100두남에 25,000명이었던 인구가 초기 페르시아에는 110두남에 2,750명이었다고 주장한다(237쪽).⁸⁾ 마이어스는 리프쉬츠와 카터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페르시아 절정기에는 유다 포로민의 인구 75%가 베냐민 지역과 유다 고지대, 15%는 쉘렐라에, 나머지 10%는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예루살렘 지역 전체 인구가 3,000명에 1/10 밖에 되지 않았다는 느헤미야의 주장을 같이 하면서 예후드의 거주자를 약 30,000명으로 추산하는 리프쉬츠의 주장과 일치한다(239쪽). 또한 마이어스는 바스타드(Hans M. Barstad)의 ‘텅 빈 땅 신화(the Myth of the empty land)’를 철저히 반박한다. 마지막으로 마이어스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에 의해 형성된 제사장직에 대한 관심 가운데 이방인 혐오증이 당연하다고 보았다(262쪽).

2.11. 제11장: 텅 빈 땅 신화를 넘어서서: 초기 페르시아 재평가

미들마스(J. A. Middlemas)는 포로기 당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예후드에 남으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성서적, 제국적, 고고학적 증거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미들마스는 이러한 접근을 위해 용어와 시간성, 연속성 논쟁, 사회 통합, 시온 귀환 모티브의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정리한다.

첫째, 용어와 시간성은 포로에 대한 용어에 대한 재정의에서부터 출발한다. 포로는 단일 추방에 대한 암시를 주지만 성서 기록은 적어도 세 차례에 대한 추방이 있었다. 그러므로 미들마스는 이 시기를 오히려 망명이나 난

8) 1두남(dunam)은 1,000m²이다. 이것은 약 303평(302.5평)에 해당되는 크기이다. 초기 아케메니드 예후드 지역의 인구 통계학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라. 김지훈, “초기 아케메니드 예후드(Early Achaemenid Yehud): 경계와 정착 그리고 인구”, 『구약논단』 74 (2019), 314-341.

민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또한 ‘포로기’라는 용어는 추방된 사람들의 관점이며 이것은 ‘역사적 사건의 개념에 대한 별개의 질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247쪽). 특별히 제2이사야에 언급되고 있는 고레스가 학개와 스가랴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고레스 칙령 역시 일반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249쪽). 오히려 기원전 587년부터 시작해서 제2성전이 재건되는 515년까지 무성전 시대임을 강조한다(250쪽).

둘째, 연속성의 문제이다. 미들마스는 연속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베냐민 지역의 인구와 이 시기의 성서 작품을 통해 접근한다. 미들마스는 <이스라엘의 무성전 시대>(The Templeless Age)를 통해 학개와 스가랴는 야웨의 개입과 인간의 반응으로 접근하며 제2이사야와 에스겔은 이상화된 모습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251쪽). 미들마스는 이 시기가 민족적 정체성과 사교의 연속성이 이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사회 통합의 문제이다. 미들마스는 에스라 1-6장의 상황이 후대의 공동체 분열을 반영하고 있다는 윌리엄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야팻과 베드포드(Peter Bedford)의 입장을 정리한다(252-253쪽). 특별히 미들마스는 야팻과 베드포드가 주장한 성전 건축의 백성 가운데 암하레츠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통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3이사야를 살펴본다(257쪽).

넷째, 시온으로의 귀환이다. 미들마스는 스가랴 7:2의 ‘벤엘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제의 문제의 판결을 받기 위해 가는 장면이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260쪽).

미들마스는 이러한 네 가지 접근을 통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당시 공동체 사회가 국가적이며 정치적 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261쪽).

2.12. 제12장: 예루살렘 재건: 스가랴의 환상 속 환상

리스타우(Kenneth Ristau)는 스가랴 1-8장의 환상 내용 가운데 1:8-3:10의 네 환상과 권고에 집중한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타난 회복과 재건 모티브에 가려진 현실과 예루살렘을 문학적-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한다.

첫째, 스가랴 1:8-17의 첫 번째 환상은 이데올로기와 실용주의가 서로 혼합되어 있으면서 정치적 수사학을 담고 있다고 보았다(272-273쪽).

둘째, 스가랴 2:1-4의 두 번째 환상은 농업적 모티브가 담겨 있으며 이 모티브는 예루살렘 재건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 준다고 보았다(277-278쪽).

셋째, 스가랴 2:5-9의 세 번째 환상은 신적 계획을 통한 성전 재건에는 노

동이 필요할 것을 언급한다. 스가랴 2:10-17의 첫 번째 권고 사항들은 도성이 다시 선택되고 완벽하게 만들어질 야웨의 귀환을 포함한다(278-280쪽).

넷째, 스가랴 3:1-10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야웨 종교의 보편적인 주제와 특수성을 통해 드러나는 긴장감을 반영한다(283-284쪽).

다섯째, 스가랴 7:1-8:23에 나타난 예레미야는 첫 번째 환상을 통해 이미 언급된 예루살렘을 향한 야웨의 선한 뜻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보편주의 개념으로 돌아간다(284-291쪽).

3. 평가

이 책에는 총 12편의 논문이 실려 있다. 12편의 논문 가운데 이 시기의 배경을 중심으로 성서를 주석한 논문들은 베킹과 버그스마, 풀턴, 리스타우의 논문이 있다. 포로기 이후와 초기 아케메니드의 연속성을 생각할 때 제사장 가문에 대한 정치권력에 대한 평가는 블렌킨소프와 풀턴의 논문을 읽어 볼 수 있다. 에스케나지와 그레브의 두 편의 논문 그리고 크라츠, 마이어스, 미들마스의 논문은 이 시기의 역사 편찬부터 시작해서 고고학과 인구통계학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논문들이다. 이 책의 서론에서도 크노퍼스와 그레브는 ‘논문에 나타난 주제들’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용어, 새로운 자료들, 역사 편찬학, 예루살렘과 페르시아와 관구들의 관계, 공동체 갈등과 통혼 논쟁. 크노퍼스가 정리한 이 주제들은 지금까지 포로기와 초기 아케메니드를 연구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용어 문제는 소위 포로기 이후라는 시간적인 설정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학위 논문을 쓰면서도 포로기, 포로기 이후, 유다 말기라는 용어를 놓고 고민을 한 적이 있다.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달리아까지를 생각할 때 유다 말기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 같아서 그달리아까지를 유다 말기로 설정하고 논문을 진행하였다. 미들마스가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용어에 대한 고민은 용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고레스 칙령 역시 아케메니드 전역에서 포로민들을 돌려보냈다는 시각에는 회의적이다.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아케메니드와 관구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조명이 좀 더 꼼꼼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레스와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우스로 이어지는 초기 아케메니드 역사 가운데 행정 정책의 연속성은 이 시기의 예후드를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역사 편찬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로는 렘케(Niels Peter Lemche), 톰슨(Thomas L. Thompson), 데버(William G. Dever)가 있다. 렘케는 성서에 반영된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데올로기를 통해 성서가 추구하고자 했던 방향이 달라진다고 보았다.⁹⁾ 톰슨은 경험을 통해서 성서가 추구하는 모티브를 확인하려고 하였다.¹⁰⁾ 데버는 성서 사건 이면에 담겨 있는 선전(宣傳, Propaganda)의 의도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¹¹⁾ 공동체 갈등은 남아 있는 자와 돌아온 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이것은 성전 재건 문제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났다.

이 책 안에서도 초기 페르시아(그래브, 미들마스), 아케메니드(지굴로프)를 서로 혼용하고 있다. 또한 초기 페르시아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학자마다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래브는 자신의 논문에서 느헤미야 비망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암묵적으로 초기 페르시아의 시기를 제2성전이 재건되고 난 이후 기원전 5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들마스는 학개와 스가랴 1-8장 그리고 성결법전과 제2이사야와 에스겔서를 다룬다. 논문의 결론에서 기원전 6세기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성결법전과 제2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서에 대한 성서 편집의 연대 추정은 다루고 있지 않다. 미들마스는 제2성전과 관련된 시기까지를 초기 페르시아라고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 같다.

구약 성서와 아케메니드와 관련된 논문 가운데 ‘초기 아케메니드’(Early Achaemenid)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베드포드(Peter Bedford)이다.¹²⁾ 베드포드는 초기 아케메니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논문 안에서는 어느 시기까지를 초기 아케메니드로 설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베드포드는 아케메니드 역사에서 다리우스(Darius I)가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한 요충 지역으로 예후드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배경에 주목하였다. 다리우스는 기원전 490년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 그의 권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기원전 486년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다리우스가 죽은 이후 예후드와 이집트는 아케메니드 행정 정책에서 점차 소외되

9) Niels Peter Lemche, *The Israelites in History and Tradition*, Library of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135-137.

10) Thomas L. Thompson, *The Mythic Past: Biblical Archaeology and the Myth of Israel* (London: Basic Books, 1999), 7.

11) William Dever, *Did God Have a Wife?: Archaeology and Folk Religion in Ancient Israel* (Cambridge: Eerdmans, 2008), 63.

12) Peter Bedford, “Early Achaemenid Monarchs and Indigenous Cults”, Matthew Dillon, ed., *Religion in the Ancient World: New Themes and Approaches* (Amsterdam: Adolf M. Hakkert-Publisher, 1996), 17-39.

었다. 이후 크세르크세스 이후부터는 예후드와 이집트 보다는 헬라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토대로 베드포드는 초기 아케메니드를 고레스부터 다리우스까지의 시간까지로 설정하고 있다.¹³⁾

다윗 당시 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이었다. 솔로몬 이후 아비아달이 축출되고 사독이 제사장 권력의 중심에 있었다.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포로민들을 데리고 갈 때 제사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 제사장 권력을 잡은 집단은 사독 제사장이었다. 사독 제사장은 유다 말기와 초기 아케메니드 당시 제사장 권력에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구약 성서는 제사장과 관련하여 사독 제사장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론 제사장, 레위 제사장 그리고 사독 제사장을 함께 그리고 있다. 이에 대해서 블렌킨소프는 ‘아론의 아들들’의 미스터리를 통해 아론 제사장과 미스바, 벤엘과의 관련성에 집중한다.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 집단이었고 다시 돌아와 권력을 장악한 제사장 역시 사독 제사장이었다. 그러나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언급된 아론 제사장은 포로기 이후에는 거의 언급이 없고 오히려 레위 제사장이 에스겔 40-48장에서 언급된다. 레위 제사장은 신명기에서는 제사장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에스겔서에서는 그 위계가 사독 제사장을 돕는 위치에 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독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을 내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포로기가 시작되고 초기 아케메니드 역사가 이어지는 중간 사이 기원전 597년부터 539년 사이 예후드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서는 침묵한다. 레위 제사장이 권력의 중앙은 아니지만 권력의 주변부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파괴 이후 새로운 행정 정책의 중심지였던 미스바 그리고 벤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제사장 집단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또한 포로기 이후 예후드로 되돌아온 집단이 안정적인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스 1:5-6; 2:68-70). 예후드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정치 지도자는 아케메니드 제국의

13) 초기 아케메니드와 초기 페르시아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김지훈, “초기 아케메니드 예후드(Early Achaemenid Yehud): 경계와 정착 그리고 인구”의 각주 3을 참조하라. 김지훈, “초기 아케메니드 예후드(Early Achaemenid Yehud): 경계와 정착 그리고 인구”, 315-316; Pierre Briant, *From Cyrus to Alexander: A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Peter, T. Daniels, trans. (Winona Lake: Eisenbrauns, 2002), 107-146; *Histoire de l'empire perse de Cyrus à Alexandre*, vol. 2, Achaemenid History 10 (Leiden: Netherlands Institute voor het Nabije Oosten, 1996; Paris: Librairie Arthème Fayard, 1996).

관심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지역과의 동맹을 다지려고 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소위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이들이 정치 권력의 핵심인 제사장들과 어떤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성전 재건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면서 새롭게 활동을 재개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정치적 관심은 제사장으로서 다시 등용되는 것이며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성전 재건과 더불어 권력을 쟁취하려는 과정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¹⁴⁾ 이러한 정치권력의 배경 가운데 예루살렘과 더불어 미스바와 벤엘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느헤미야 7:2의 ‘영문(בִּירָה)’, *bīrāh*’는 구약성서에서 총 18회 사용되었다. 에스더서에서 ‘도성’으로 총 9회 사용되었으며(에 1:5; 2:3, 5, 8; 3:15; 8:14; 9:6, 11-12) 그 밖에 성전(2회; 대상 29:1, 19), 궁(2회; 느 1:1; 에 1:2), 영문(2회; 느 2:8; 7:2), 요새(1회; 대하 17:12), 진영(1회; 대하 27:4), 성(1회; 단 8:2)으로 사용되었다. *bīrāh*’는 아람어 *byrt*의 절대형으로서 접미사를 제거하는 역성어 형태이다.¹⁵⁾ 이것은 마지막 자음인 *t*가 여성형으로 끝나고 있음을 전제한다. 리핀스키(Edward Lipinski)는 아케메니드 시대에서 *byrt yb* 혹은 *yb byrt*’의 형태는 장소를 의미하며 뜻은 동일하다고 보았다. 에스라 6:2에서는 아람어 형태로 궁성(*bīrt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 그 자체를 나타내며 도시 안에 존재하는 성채(城砦)라기 보다는 도시를 벽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둘러싼 형태(wall-protected city)를 말한다. 그레브는 느헤미야 7:2과 2:8을 비교하면서 *bīrāh*’를 벽이 있는 성전으로 언급하고 있다(192-193쪽). *bīrāh*’를 도시 안에 존재하는 성채나 혹은 단지 일반적인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지만 카탈도(Jeremiah W. Cataldo)는 *bīrāh*’를 제국이 다스리는 행정 정책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주장한다.¹⁶⁾

14) 김지훈, “초기 아케메니드 예후드 지방의 정치, 경제의 빛에서 바라본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연구”, 67-68.

15) Raymond A. Bowman, *Aramaic Ritual Texts from Persepolis* (Chicago: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1970), 76, 116.

16) Jeremiah W. Cataldo, *A Theocratic Yehud?: Issues of Government in a Persian Period* (London: T&T Clark, 2009), 170-171.

<주제어>(Keywords)

초기 페르시아(초기 아케메니드), 예후드, 에스라-느헤미야, 예루살렘, 아크로이드.

Early Persia(Early Achaemenid), Yehud, Ezra-Nehemiah, Jerusalem, Peter R. Ackroyd.

(투고 일자: 2019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9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4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강후구, “서평: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onian Rule* (Oded Lipschits,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성경원문연구」 43 (2018), 326-336.
- 김지훈, “초기 아케메니드 예후드(Early Achaemenid Yehud): 경계와 정착 그리고 인구”, 「구약논단」 74 (2019), 314-341.
- 김지훈, “초기 아케메니드 예후드 지방의 정치, 경제의 빛에서 바라본 에스겔 40-48장에 나타난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2018.
- Bedford, Peter, “Early Achaemenid Monarchs and Indigenous Cults,” Matthew Dillon, ed., *Religion in the Ancient World: New Themes and Approaches*, Amsterdam: Adolf M. Hakkert-Publisher, 1996, 17-39.
- Bowman, Raymond A., *Aramaic Ritual Texts from Persepolis*, Chicago: Oriental Institute Publications, 1970.
- Brett, Mark, *Genesis: Procreation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2000.
- Briant, Pierre, *From Cyrus to Alexander: A History of the Persian Empire*, Peter T. Daniels, trans., Winona Lake: Eisenbrauns, 2002, 107-146; *Histoire de l'empire perse de Cyrus à Alexandre*, vol. 2, Achaemenid History 10, Leiden: Netherlands Institute voor het Nabije Oosten, 1996; Paris: Librairie Arthème Fayard, 1996.
- Carter, Charles E., *The Emergence of Yehud in the Persian Period: A Social and Demographic Study*, JSOTSup 29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Cataldo, Jeremiah W., *A Theocratic Yehud?: Issues of Government in a Persian Period*, London: T&T Clark, 2009.
- Dever, William Dever, *Did God Have a Wife?: Archaeology and Folk Religion in Ancient Israel*, Cambridge: Eerdmans, 2008.
- Lemche, Niels Peter, *The Israelites in History and Tradition*, Library of Ancient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Lipschits, Oded., *The Fall and Rise of Jerusalem: Judah under Babylonian Rule*, Winona Lake: Eisenbrauns, 2005.
- Lipschits, Oded and Blenkinsopp, Joseph, 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Neo-Babylonian Period*,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 Lipschits, Oded, Knoppers, Gary N., and Albertz, Rainer, eds., *Judah and the Judeans in the Fourth Century B.C.E.*, Winona Lake: Eisenbrauns, 2007.

Thompson, Thomas L., *The Mythic Past: Biblical Archaeology and the Myth of Israel*, London: Basic Books, 1999.

Watts, James W., ed., *Persia and Torah: the theory of imperial authorization of the Pentateuch*,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Abstract>

**Book Review - *Exile and Restoration Revisited: Essays on the Babylonian and Persian Periods in Memory of Peter R. Ackroyd*
(Gary N. Knoppers, et al., eds., Yoonkyung Lee, trans., CLC, 2019)**

Ji-Hoon Kim
(Hanshin University)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book, *Exile and Restoration Revisited: Essays on the Babylonian and Persian Periods in Memory of Peter R. Ackroyd* (2009), edited by Gary Knoppers, Lester L. Grabbe and Deirdre Fulton. This paper is a review of its Korean translated edition. The book contains a total of 12 papers and offers a glimpse into various perspectives on the Babylon and Persian period.

In particular, this book is written with the following five points of view: terminology, new sources, historiography, Jerusalem and the Persian relationship with the Provinces, community strife and the intermarriage issue.

This review first summarizes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and then comments from the following three points of view.

First, the five points of view (terminology, new sources, historiography, Jerusalem and the Persian relationship with the Provinces, community strife and the intermarriage issue) are now being discussed.

Second, it is a question of the timing of early Achaemenid. Personally, I set the period of Darius I as the early Achaemenid because Achaemenid has lost interest in Egypt and Jehud since the death of Darius I.

Third, it is a matter of the priest's political power. Especially before the time of captivity, Zadokite priest was in power and Zadokite priest was in power during the early Achaemenid period. But they still haven't dropped the Levite. Blenkinsopp's paper on the reasons makes one wonder about the link between Mizpah and Bethel about the political power of the Levites.

I am sure this book is useful to people studying Babylon and early Achaemenid history.